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8일 화요일 음 7월 6일 (13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6℃, 낮 최고기온은 31-32℃로 예상된다. 늦은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가 많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60%
60%	성산	60%
60%	고산	60%
60%	서귀포	60%

해돋이 05:58 해질 19:17	달돋이 11:29 달질 22:09
물때 만조 01:35 14:39	간조 08:31 20:53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맑음	25/32℃
모레	흐림	25/32℃

월드뉴스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

“나와 김정은 매우 좋은 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미국이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합훈련이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어 헤그세스 장관에게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이번 발언은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앞두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이후 공개적으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최근 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 배경으로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한 만큼 북한에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한라칼럼



김윤우 무릉외갓집 대표

근 한 달 넘게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농가들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밭아기에 수분 공급이 절대적인 당근 주산지인 그렇고, 이제 머지않아 파종작업을 해야 하는 마늘 주산지인 대정도 그렇다.

다행스럽게도 광복절 연휴 동안 내려준 단비 덕분에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됐지만, 이런 가뭄과 폭염이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상시적인 농업재난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시급하게 세워져야 한다. 마늘 주산지인 대정은 이때쯤 마늘종자

월동채소의 균형추... 마늘을 살리자

선별작업이 한창이다. 집집마다 혹은 창고 한쪽에서 8월 하순이나 9월 초 파종해야 할 마늘 종자를 다듬어 내는데 여기에서 선별된 종자가 올 한 해 파종할 마늘면적을 가늠할 수 있다. 연휴기간 동안 여러 농가를 방문해 종자물량을 측정한 결과 내년도 마늘재배면적은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602ha에 달하던 대정을 마늘재배면적이 지난해 840ha로 줄어든다. 내년도는 800ha 이하로 줄어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더 정확한 것은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월동채소 작황관측 자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7년산 마늘 재배면적 실측조사 결과를 더하면 실제 재배면적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늘재배면적 감소는 양파, 양배추 등 상대적으로 재배가 손쉬운

양채류 면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마늘재배농가의 고령화와 인력난,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건비가 주된 이유겠지만 전체적인 마늘 작황이나 수입물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 마늘수매가격에 대한 불안감도 한몫하고 있다.

심히 걱정되는 부분은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월동채소류의 균형추인 마늘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 중후반 대정·안덕·한경지역을 중심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마늘은 비교적 높은 수취가에 힘입어 재배면적을 넓혀가며 지역 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기점으로 성산·구좌 등 동부지역은 당근과 월동무류, 한림과 애월지역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 양채류를 그 지역에 특화된 발작물로 월동채소류 재배지도를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지면적이 넓은 대정이나 안덕지역에서 일손이 많이 드는 마늘재배를 포기하고 비교적 재배가 손쉬운 일반 양채류로 작목을 전환하면 월동채소 재배지도는 변형되거나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양배추를 비롯한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을 불러왔고 급기야 산지폐기라는 아픔까지 거의 매년 되풀이해 왔다.

이렇듯 양배추, 월동무, 양파 등 월동채소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라도 균형추 역할을 해온 마늘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일부 마늘농가들이 주장하는 월동채소류 산지폐기 예산을 마늘재배 장려금으로 활용해 마늘시장 희망가격과 농가 희망가격이 반영된 산지계약단가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안정적인 마늘농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린마당

해변공연장, 무엇을 허물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도시의 친구를 만드는 가장 긴 호흡의 투자



하석홍 화가·설치미술가

지난 8월 12일 탐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주민공청회에 참석했다. 예술인 이자 제주시 원도심 주민으로서 가장 먼저 든 질문은 “왜 탐동 해변공연을 전면 철거해야 하는가”였다. 1995년 문을 연 해변공연장(필자는 개관 기은 제주국제관악제를 비롯한 수많은 공연과 30년 넘는 제주도민의 기억이 쌓인 문화공간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한 안전진단 결과도 B등급이었다. 그렇다면 30년 됐다는 이유로 철거부터 결정하기보다 보수·보강과 리모델링, 일부 증·개축, 전면 신축안을 놓고 비용과 안전성, 해안 경관과 공공성

을 비교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두 번째는 재정 문제다. 총사업비는 약 2500억원, 국비는 최대 250억원으로 전체의 10%다. 만약 2000억원을 차입한다면 연 4~5% 금리만으로도 하루 약 2200만~2700만원, 연간 80억~100억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재원과 상환, 향후 운영·관리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도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필자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얼마나 크게 지을 것인가”보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가 먼저다. 탐동은 제주 원도심의 역사와 기억이 모인 장소다. 매립으로 제주 고유의 먹물·몽돌 해안의 원형을 이미 잃었다. 이제 또다시 30년의 시간을 허물기보다 기존 공간을 살려 새로운 기능을 더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진정한 혁신은 오래된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를 다음 세대의 공공자산으로 남기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김은경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일본교류 담당

국제교류 업무를 오래 하며 느낀 것은 교류의 깊이가 행사의 규모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화려한 행사보다 함께 밥을 먹고 웃으며 보낸 평범한 하루가 더 오래 남는다.

오는 8월 22일 일본 기노카와시 청소년들이 서귀포를 찾는다. 2009년 시작된 두 도시의 홈스테이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홈스테이는 단순히 머무는 자리가 아니다. 학교 방문이나 문화 체험이 상대 문화를 ‘보고 배우는 교류’라면, 홈스테이는 한 가정의 일

상 속에서 문화를 함께 살아가는 ‘생활형 교류’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일상을 나누며 서로 다른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 그 경험은 학생 한 명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함께하면서 한 학생의 교류는 한 가족의 기억으로 확장되고, ‘도시 대 도시’의 교류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바뀐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도시의 기억은 오래간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와 가족, 함께했던 일상은 도시 전체에 대한 친밀감으로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관계 자산’이 된다.

행정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 관계까지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다. 청소년 교류는 미래 세대에게 ‘도시의 친구’를 선물하는 가장 긴 호흡의 투자다. 사람 사이에 쌓인 신뢰와 호감, 그것이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힘이라고 믿는다.

제주소리셈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셈 디지털 보청기

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셈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셈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소리셈 보청기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TEL. 753-5347

←광양 → 오라파출소 → 터미널 → 신제주 →
한국병원 **소리셈 보청기**

고리파이프상사

- ◆ HI-3P상·하수도관(고리) ◆ PE관 상·하수도관(미래화학)
- ◆ 제수밸브등 밸브류일체(신진전공)
- ◆ 이탈방지부속 하수도 맨홀등(대광주철)
- ◆ 각종 친환경 상·하수도 부속일체 도·소매 (주)YDI

대표 이창빈

고리파이프상사
• SK주유소
• 안전LPG

제주시 변영로 116 Tel. (064)721-8400 Fax. (064)721-8401 HP. 010-3696-4114